

광주 경유 1,200원대 주유소 등장...평균 1,300원대

2년 전 가격대로...휘발유도 하락
“이번 주 낙폭 둔화·소폭 상승 전망”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의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약 2년만에 l(리터) 당 1,300원 대에 진입했으며 1,2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휘발유 1,583.40원, 경유 1399.15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가격은 각각 1,599.90원·1,422.73원이다.

광주지역 경유 평균 가격이 1,300원 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21년 6월 다섯째 주(1,388.79원) 이후 약 2년만이다.

경유값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에 따른 경유 수급에 차질·재고 부족 등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6월에는 2,158원까지 치솟았고 여기 에다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역전’ 현상도 나타나 8개월간 유지됐다.

이후 미국산 원유의 재고 증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 불안 완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판매가격을 1,200원대로 책정한 주유소도 등장했다. 상표별로 ▲광산구 ㈜평동제일주

유소 ▲서구 ㈜대원주유소·반디석유 시정점에서 광주에서 가장 저렴한 리터당 1,298~9원 가격대를 보였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일부 진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상업원유 재고 감소 발표 등에 소폭 상승했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4달러 오른 배럴당 75.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3.2달러 오른 88.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4달러 오른 90.4달러로 집계됐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 유가가 2주 연속 상승해 이번 주에는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하거나 가격이 소폭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홍승현 기자



경유값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30일 광주시 서구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을 1,200원 대에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스위스 취리히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2030년까지 FIFA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 김걸 사장(오른쪽)과 지안니 인판티노 FIFA 회장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FIFA 월드컵 후원 연장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 2030년 월드컵을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모빌리티 부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장 김걸 사장, 지안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FIFA 월드컵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후원 연장으로 최고등급 FIFA 공식 파트너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개최되는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30년 월드컵 등 향후 8년동안 FIF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모빌리티 부문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차량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현대차그룹은 FIFA와의 협력 관계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후원 범위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로보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UAM 독립법인 슈퍼널도 파트너십에 참여했다. /오지현 기자

K배터리 동맹 미국 전기차 시장 ‘정조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맞손

합작법인 계약...북미에 공장 설립

5조7천억 투입...2025년 생산 목표

미국 생산 전기차에 전량 공급 예정

현대차그룹이 오는 2025년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한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

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을 기점으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HMGMA) 부지가 위치한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양측은 연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르면 2025년 말 생산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이들은 총 5조 7,000억원(43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하며 지분은 각 50%씩 보유할 예정이다.

합작공장은 연산 약 30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대 분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

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 현대차그룹의 미국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생산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현지에서 조달해 고효율·고성능·안전성이 확보된 높은 경쟁력의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검증된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셀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할 미국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대우에이피, 해외공급 차종 스티어링 휠 수주

국내 자동차 스티어링 휠 1위 업체 대우에이피가 업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대우에이피는 30일 해외 자동차 전시회인 ‘2023월드카어워드(WCA)’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한 아이오닉 6를 포함해 아이오닉

5, EV6, 소형 CUV 전기차, 승용전기차 등 6개 차종의 해외공장 공급 차종에 대한 스티어링 휠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수주한 스티어링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게 되며, 생산 규모는 연간 약 36만 대 정도다.

대우에이피는 현재 소형 SUV인 코나의 후속 차량인 SX2의 성공적인 개발을 완료해 양산 중에 있다.

한편, 대우에이피는 2021년 대한민국 10대 등대기업에 선정됐으며, 현대차·기아 품질시스템 등급에서 5스타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Lv4수준(고도화 2단계)의 등대공장 구축을 통해 품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 S-클래스